

CAMBODIA

ENTRY STRATEGY 

2021 국별 진출전략

캄보디아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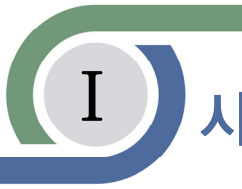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kotra 2021 캄보디아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저하 및 회복 전략	4
나. 대(對) 캄보디아 무역특혜 축소에 따른 영향과 전망	4
다. FTA 체결 통한 시장 다각화 움직임 본격화	5
라. 각종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2
2. 시장 분석	14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4
나. 수출	15
다. 투자 진출	17
라. 프로젝트	20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2
가. 교역	22
나. 투자	2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4
III. 진출전략	26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26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7
3. 한-캄보디아 경험을 통한 진출전략	33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9
3. 2021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0
4.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 사회 캘린더	42
부 록	
대(對) 캄보디아 K패키지	43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0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2019년 대비 하락 전망

- 2020년 경제성장률 대폭 하락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은 2020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4.0%, 세계은행은 -2.0%, EIU는 -1.7%, IMF -2.8% 등으로 전망
- 제조업 수출 감소, 관광 및 건설 부진 등 주요 성장 동력 침체
 - 코로나19 및 EBA 무역특혜 축소로 인한 봉제 수출 감소, 관광 및 건설 부문 축소, FDI 유입 부진, 내수 침체, 정부 지출 감소 등으로 성장 둔화
-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시장 확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제조기지 이전 가능성 등 긍정 요인 존재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	백만 명	15.3	15.5	15.8	16.0	16.2	16.5	16.7	16.9
명목 GDP	십억 달러	16.8	18.0	20.0	22.2	24.6	27.1	27.3	27.1
1인당 명목 GDP	달러	1,093	1,162	1,269	1,385	1,512	1,643	—	—
실질성장률	%	7.1	7.0	6.9	7.0	7.5	7.1	-1.7	1.3
실업률	%	0.69	0.39	0.71	0.68	0.65	0.67	0.69	—
소비자물가상승률	%	3.9	1.2	3	2.9	2.4	2.4	1.5	1.9
재정수지(GDP 대비)	%	—	—	—	-0.8	0.4	0.8	-10.5	-10.3
총수출	백만 달러	6,846	8,542	9,982	11,268	12,707	14,824	—	—
(대한(對韓) 수출)	〃	123	137	163	169	200	212	—	—
총수입	〃	9,702	10,668	12,312	14,289	17,393	20,279	—	—
(대한(對韓) 수입)	〃	390	459	435	491	569	673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2,856	-2,126	-2,330	-3,021	-4,686	-5,455	—	—
경상수지	〃	-1,443	-1,598	-1,733	-1,799	-2,992	-4,207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4,037	4,067	4,058	4,050	4,051	4,061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082	0.088	0.079	0.115	0.124	0.102	—	—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1,853	1,823	2,476	2,786	3,208	3,706	—	—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EIU, 세계은행, ITC Trade map, UNCTAD 종합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요약

2021년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여파로 봉제 수출, 관광, 건설 등 주요 부문 성장 저하 및 실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 최소화 및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예상. EBA 무역특혜 일부 축소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되나,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FTA를 통해 시장 다변화 및 도로, 공항, 전력 등 각종 인프라 개선 노력 예정

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저하 및 회복 전략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성장 동력 침체 및 실업

- 봉제 부문 수출, 관광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음
 - 2020년 상반기 450개 의류·신발 공장의 가동 중단 및 80개 이상 폐업으로 13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
 -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 2021년 최저임금을 월 192달러로 결정(2020년 190달러)
 - 2020년 상반기 관광객 관련업체 3,000개 이상이 폐업해 실업자 수가 4~5만 명에 달하며, 2020년 관광 부문 손실액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해외 투자 의존도가 큰 건설 및 부동산 부문도 성장 둔화
 - 대규모 프로젝트 중단 또는 지연, 신규 투자 둔화, 건설자재 수입도 감소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회복 위해 다양한 전략 실행 예정

- 코로나19 대응 위해 세금 감면, 재난지원금 지원, 특별기금 마련, 대출 확대 등 다양한 구제책 실시
-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줄이고 산업 다각화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
 - 현재 봉제, 관광, 건설, 저부가가치 식품제조 등에 편중되어 있으나 농산물가공, 소비재 및 자본재 제조 등 다양한 산업 육성 계획
- 다양한 양자·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을 통해 시장 다변화 모색
- 각종 제도 개혁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침

나. 대(對) 캄보디아 무역특혜 축소에 따른 영향과 전망

□ EU의 대(對) 캄보디아 EBA 부분 철회

- EU는 캄보디아의 심각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로 2020년 8월 12일부터 EBA* 무역특혜 부분 철회 시행
 - EBA 부분 철회 절차 공식 착수(2019년 2월)부터 본격 시행(2020년 8월)까지 캄보디아 측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 실패

- 코로나19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조치로 의류, 신발, 가방 등 대(對) EU 수출의 약 20% (약 10억 유로)가 영향을 받게 되어 수출 타격 불가피

* EBA(Everything But Arms)는 EU가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의 관세와 쿼터 제한을 면제하는 무역특혜 제도

- EU는 인권과 노동권 등의 근본적·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EBA 특혜 회복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표현의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 토지 분쟁, 노동권 등 캄보디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지속 논의 예정
 - EU의 철회 과정을 고려할 때 EBA 특혜 회복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측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미국도 캄보디아의 GSP 혜택 철회를 검토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 무역특혜 축소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무역특혜 축소로 캄보디아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코로나19와 EBA 부분 철회의 실질적 영향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역내 봉제 부문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예상
 - EU와의 FTA가 발효(2020년 8월 1일)된 베트남, EBA 혜택이 온전히 적용되는 방글라데시·미얀마 등 역내 국가들 대비 경쟁력 상실 가능성

다. FTA 체결 통한 시장 다각화 움직임 본격화

□ 주요 국가와의 양자 FTA 체결 통한 시장 다각화 및 경제통합 노력

- 캄보디아-중국 FTA가 공식 체결(2020년 10월 12일)되었으며, 2021년 공식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 확산
 - 중국과의 FTA 발효 시 캄보디아의 중국 수출이 매년 25% 증가 및 2023년 양국 교역량이 100억 달러 돌파 전망
 - 대(對) 캄보디아 최대 지원 및 투자국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EU, 미국 등 특정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 낮추고 EU의 EBA 부분 철회로 인한 손실도 상쇄할 것으로 기대
 - 쌀, 망고 등 농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캄보디아 상품의 수출 확대, 관련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예상
- * 캄-중 교역 규모: (2018년) 74억 달러 → (2019년) 94.2억 달러
- 한-캄 FTA를 통해서도 캄보디아 농산물 등 수출 확대 예상
 - 한국과 캄보디아는 2020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발효 예상

- 캄보디아 정부는 이 외에도 인도,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몽골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 가능성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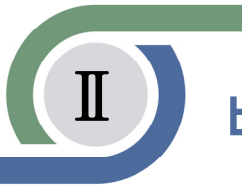
□ 양자 FTA 외에도 다자 간 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노력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홍콩 FTA*, 캄-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등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 및 협의 중
 -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발효 시 해외시장 접근성 및 수출 경쟁력 향상, 투자 유치 확대 등의 기대효과 예상
 - 아세안-홍콩 FTA 발효 후 10년 내에 홍콩산 상품 65%, 20년 내에 85%에 대한 관세 철폐 예정
 - * 아세안-홍콩 FTA는 2019년 6월 11일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에서 발효되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9월 협정안 승인

라. 각종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

□ 주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노력

- 도로, 공항, 전력 등 주요 인프라 개선 노력
 - 프놈펜-시하누크빌 간 고속도로*(중국 BOT 프로젝트, 20억 달러 규모)
 - *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로 2020년 9월 말 기준 공정률 26%, 2023년 3월 개통 예정
 - 주요 국제공항 신규 건설(프놈펜, 시엠립 등) 및 시설 확충(시하누크빌)**
 - ** 프놈펜 신공항은 현지 대기업과 정부 합작투자로 개발 중이며, 2023년 초 1단계 완료 예정(기존 프놈펜 공항은 정부수반 및 고위관리, 국내선 등으로 사용 예정)
 - 시엠립 신공항은 중국 BOT로 진행 중이며, 2023년 초 1단계 완료 예정
 - 시하누크빌 공항도 관광객 수용 확대를 위해 활주로 공사 및 주요 시설 확충 중
 - 꼬공 주 Dara Sakor International Airport도 건설 중
 -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차관 사업 진행, 해외 투자 유치 등 전력망 확충 및 전기 보급 확대 노력 지속 중
- 정부는 차관, 민간협력,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주요 공공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 예정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요약

집권여당의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정국 안정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수출, 건설, 관광 등에 힘입어 지속 성장해 왔으나 코로나19 위기, EBA 부분 철회 등으로 주요 성장 동력 침체 및 성장 둔화 전망. 위기 극복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산업 다원화, 수출시장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가. 정치 환경

□ 집권여당의 강력한 통치를 바탕으로 안정적 정국 지속 예상

- 집권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의 확고한 세력 유지 및 정국 안정 전망
 - 2018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국민당이 125석 전석을 차지하며 훈센 총리*가 2023년까지 총리직 유지 예정
 - * 훈센 총리는 1985년 총리로 최초 선출되어 36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아시아 최장수 총리
 - 2018년 총선 전 제 1야당 해산, 야당 주요 인물들의 재판, 망명 등으로 야당 세력 및 영향력 극도로 약화
- 훈센 총리는 국가 안정을 위해 집권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으나 권력 승계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는 분석도 있음
 - 육군사령관인 장남 훈마넷이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

□ 실업 등에 따른 불안 요소 있으나 정국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 발생 가능성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공장 폐업·중단으로 인한 임금체불이나 실업, 생계 악화 등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될 가능성 있음
- 막강한 공권력, 과거 정부의 강력한 대처에 대한 학습 효과 등으로 반정부 시위 등의 발생 가능성은 미미

나. 경제 환경

□ 연평균 7% 이상 고속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2020년 성장률 대폭 하락

- 코로나19로 봉제, 관광, 건설 등 주요 성장 동력이 타격을 입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해외 수요 축소로 인한 의류 및 신발 수출 감소, 여행 제한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해외직접 투자 감소, 주요 개발 프로젝트 중단 또는 지연, 내수 축소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단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장률	7.1	7.0	7.0	6.8	7.5	7.1	-2.0

주: 2020년은 기준선(baseline) 전망치

자료: 세계은행

- 2021년 해외 수요 회복, 관광 및 건설 재개 등에 힘입어 4~5%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는 6% 이상 성장해 예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 규모도 확대

- 의류, 신발, 가방 등 봉제 및 농산물, 자전거, 전자전기부품 등의 수출에 힘입어 수출 지속 성장세 기록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봉제 수출은 감소했으나 자전거, 전자부품 등 비(非)봉제 제품의 수출 증가
- 수출 원부자재 및 건설자재 수요 증가, 내수 증가로 인해 수입 지속 확대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	8,542	9,982	11,268	12,707	14,824
수입	10,668	12,312	14,289	17,393	20,279
무역수지	-2,126	-2,330	-3,021	-4,686	-5,455

주: 캄보디아 수출입 통계는 통계 추출방식(direct/mirror), 발표기관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실제 교역액과 오차 있을 수 있음

자료: ITC Trademap(direct data)

- 캄보디아 최대 수출 시장은 EU로 2019년 총 수출액의 약 33%를 차지했으며, 단일 시장으로는 미국이 30%를 차지
 -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전기기기 및 부품, 자전거, 귀금속, 곡류 등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으로, 3개국 합계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해당 국가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음
 -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 원부자재, 차량 및 부품, 연료, 기계, 전자기기, 플라스틱제품 등

〈2019 캄보디아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수출 현황				
순위	국가명	수출액	증가율	비중
1	미국	4,414	45	30
2	일본	1,140	6	8
3	독일	1,081	-2	7
4	중국	1,012	17	7
5	영국	979	-4	7
6	캐나다	839	8	6
7	벨기에	544	10	4
8	스페인	518	1	3
9	태국	507	62	3
10	네덜란드	464	9	3
기타		3,322	8	22
합계		14,824	17	100

수입 현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가율	비중
1	중국	7,585	19	37
2	태국	3,234	3	16
3	베트남	2,724	19	13
4	일본	887	17	4
5	대만	800	3	4
6	인도네시아	772	32	4
7	한국	673	15	3
8	싱가포르	606	6	3
9	말레이시아	583	39	3
10	홍콩	541	-11	3
기타		1,868	6	9
합계		20,279	14	100

자료: ITC Trade Map(direct data)

□ 중국이 대(對)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으로 건설, 제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 투자

-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승인된 누적 FDI 중 중국이 21.8%로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6.16%), 영국(5.01%), 말레이시아(3.59%), 일본(3.13%), 홍콩(3.05%)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2019년 투자 승인된 프로젝트 신고액 합계(내국인 투자 포함)는 94억 달러에 달함
 - 이 중 내국인 투자가 약 46억 달러로 49.44%를 차지했으며, 중국, 홍콩 등 중화권 국가가 전체의 39.55%를 차지함
 - 승인된 해외직접투자(FDI) 주요 투자 분야는 건설·부동산, 관광, 봉제 등

〈최근 5년간 국가별 캄보디아 투자 규모〉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액	\$4.6 Billion		\$3.6 Billion		\$6.3 Billion		\$6.4 Billion		\$9.4 Billion	
순위	국가	비중 (%)	국가	비중 (%)	국가	비중 (%)	국가	비중 (%)	국가	비중 (%)
1	캄보디아	69.28	중국	29.92	캄보디아	50.68	중국	51.06	캄보디아	49.44
2	중국	18.62	캄보디아	27.55	중국	25.97	캄보디아	31.15	중국	39.55
3	영국	3.00	일본	22.78	베트남	9.20	일본	13.69	BVI	4.93
4	싱가포르	2.18	태국	4.61	말레이시아	4.37	태국	0.80	일본	3.18
5	베트남	1.92	한국	4.59	싱가포르	4.12	BVI	0.76	태국	0.78
6	말레이시아	1.61	미국	3.38	한국	3.20	말레이시아	0.68	베트남	0.70
7	일본	1.28	싱가포르	3.03	일본	1.00	사모아	0.67	싱가포르	0.32
8	태국	1.18	베트남	2.45	영국	0.88	싱가포르	0.28	영국	0.28
9	한국	0.21	영국	0.60	태국	0.25	영국	0.23	한국	0.22
10	캐나다	0.19	인도	0.55	버진아일랜드	0.12	한국	0.23	네덜란드	0.15
11	기타	0.53	기타	0.54	기타	0.21	기타	0.45	기타	0.45

자료: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다. 산업 환경

□ 농업

- 캄보디아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1차 산업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들이 농업 부문에 유입됨에 따라 농업의 GDP 비중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자원은 풍부하나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성 저조하며 부가가치 제고가 핵심 과제
 - 가공 기술 부족 등으로 원물 형태로 수출하거나 건조, 단순 가공 등을 통해 베트남이나 태국 등에 수출하여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를 겪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농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사용 확대, 농산물 다양화 및 상업화를 통한 수출 확대,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 식품제조 등 관련 산업 투자 유치 등에 주력
- 농업 부문별 GDP는 작물 재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 축산업, 임업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주요 작물은 쌀, 옥수수, 카사바, 캐슈너트, 녹두, 콩 등이며, 2019년 60여 개국에 총 487만 톤의 농산물 수출*
 - * 쌀(62만 106톤), 카사바(160만 톤), 캐슈너트(20만 2,318톤), 옥수수(12만 톤), 대두(5만 7,250톤), 바나나(15만 7,812톤),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유럽, 아세안, 일본, 미국 등
- 중국과의 FTA 발효 시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한 관련 분야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바나나, 망고 등의 중국 수출이 허용된 후 관련 분야 투자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 제조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와 산업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과 무역특혜를 바탕으로 한 봉제업(의류, 신발, 가방 제조) 발달
 - 약 800개 봉제업체가 75만 명 이상 고용,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수출량 감소 및 실업자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
 - EBA 무역특혜 일부 축소 조치까지 더해져 정부와 업계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대책 필요
- 최근 FDI 유입과 정부의 제조업 다변화 및 인프라 개선 노력으로 비(非)봉제 부문 제조업도 조금씩 증가
 - 현지 기업의 제조업 부문 투자는 부진한 반면 외국기업들이 캄보디아 저임금을 활용해 음료, 포장, 건설, 전자, 자전거, 부품조립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 관광업

- 2019년 관광 부문의 실질 GDP 성장 기여도는 18.7%로, 건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성장동력이며 고용 창출, 투자 유치 등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

- 캄보디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6년간 평균 8% 가까이 꾸준히 증가했고 관광수익도 매년 증가
- 2019년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6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
 -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36만여 명으로 35.7%를 차지, 베트남 13.7%, 태국 7.5%, 라오스 5.5%, 한국 3.9%를 각각 기록

〈캄보디아 관광 현황〉

연도	외국인 관광객		평균 체류기간 (일)	객실점유율 (%)	관광수익 (백만 달러)
	관광객 수(명)	증감률(%)			
2014년	4,502,775	7.0	6.5	67.6	2,736
2015년	4,775,231	6.1	6.8	70.2	3,012
2016년	5,011,712	5.0	6.3	68.9	3,212
2017년	5,602,157	11.8	6.6	71.3	3,638
2018년	6,201,077	10.7	7.0	72.2	4,375
2019년	6,601,592	6.6	6.2	63.5	4,919

자료: 캄보디아 관광부

-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이동제한으로 캄보디아 관광 및接客업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안정 추세에 접어들어 예전 수준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손실*이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 여행사 등 관련 업체 폐업 속출, 실업자 대량 발생
 - 한편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2020년 하반기 내국인 관광 활성화

□ 건설

- 중국을 비롯한 해외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건설 산업 호황 중*, 시멘트, 철강 등 건설 자재 수입도 증가
 - 2019년 건설 부문 투자 93억 5,000만 달러 기록, 전년 대비 78% 증가
 - * 프로젝트 승인 건수는 4,446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 대부분이 내국인 투자이며, 외국인 투자 중에서는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

〈캄보디아 건설 프로젝트 승인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승인 건수	1,960	2,305	2,635	3,052	2,867	4,446
금액	2,507	3,338	5,579	6,420	5,228	9,350

자료: 캄보디아 국토관리 도시계획건설부(MLMUPC)

- 2020년 코로나19로 건설 투자 및 자재 수입 둔화, 프로젝트 다수 중단되어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 프놈펜-시하누크빌 간 고속도로, 주요 국제공항 신공항 건설, 이온몰 3 등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 중

- 무허가 및 부실시공 방지 위해 향후 건설 관리감독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금융

- 최근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등으로 금융업도 꾸준히 성장
 - 금융 시장은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매년 15~20%의 고성장 중
 - 최근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은행, MFI, 보험, 소비자 금융 등 다방면에 활발히 진출
- 2020년 6월 말 기준 캄보디아에는 상업은행 51개, 특수은행 14개, 수신취급 소액금융대출기관(MDI) 6개, 소액금융대출기관 76개 등이 있음
-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으로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도 지속 성장 중

라. 정책·규제 환경

□ 산업 정책

-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 캄보디아는 국가 및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사각전략을 개발 실행 중
 - 성장(Growth), 고용(Employment), 공평(Equity), 효율(Efficiency)이라는 비전을 앞세운 캄보디아 국가 개발 주요 정책인 사각전략은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4기(Phase IV) 사각전략 추진 중
 - 4기 사각전략의 4대 전략적 목표는 연간 7%의 경제성장을 유지, 고용 확대(양적·질적), 빈곤율 10% 이하 축소, 공공기관의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이며,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기업 및 일자리 육성, 포용적·지속적 발전을 내세움
 - 2015~2025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
 - 캄보디아 정부는 산업 발전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2015~2025 산업발전정책을 발표 및 추진 중
 - 주요 목표: 2025년 산업 부문의 GDP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그 중 제조업을 20%로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개편 및 강화
 - 2025년 비봉제 제품 수출 15%, 가공농산물 수출을 12%로 확대함으로써 수출 확대 및 품목 다변화
 - 중소기업 등록률 95%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관리체계 강화 및 육성 목표
 - 중소기업 육성정책
 - 캄보디아 정부는 고용 창출, 국내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6대 중점분야*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시행
- * 6대 중점분야 : 1) 농업 및 농작물, 2) 식품 제조 및 가공, 3) 국내 소비재 제조, 폐기물 재활용, 관광기념품 생산, 4) 기타 제조업을 위한 완제품, 부품 및 조립품 제조, 5) IT 또는 IT 기반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연구개발, 6) SME 클러스터 지구 개발 또는 입주 기업

□ 양자·다자 간 무역협정 및 기타 협약 체결현황

○ 체결 완료 무역협정

- ASEAN Free Trade Area
- ASEAN-Australia and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 ASEAN-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Chin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ASEAN-Kore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AKFTA)
- ASEAN-Hong Kong, China Free Trade Agreement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인도 제외 15국 간 잠정 체결, 발효시기 미정
- Cambodia-China Free Trade Agreement*
 - * 2020년 10월 12일 체결, 2021년 발효 예정

○ 협상 중 무역협정

- Cambodia-Korea Free Trade Agreement*
 - * 2020년 10월 기준 3차 협상 완료, 2021년 협상 체결 및 발효 예정

○ 이중과세방지 협약 체결현황(괄호 안 날짜는 발효일)

- 싱가포르(2018년 1월 1일), 태국(2018년 1월 1일), 브루나이(2019년 1월 1일), 중국(2019년 1월 1일), 베트남(2019년 1월 1일), 홍콩(2020년 1월 1일), 인도네시아(발효 예정), 한국(발효 예정)

2. 시장 분석

요약

젊고 역동적이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 높은 아세안의 신흥 시장 캄보디아는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 인프라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제통합 및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노력 중이며,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 충분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제품 인기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역동적이고 브랜드K에 대한 호감도 높은 아세안의 신흥 국가

- 적은 인구와 작은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젊고 역동적인 신흥 소비층 급부상
 - －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으로 내수 확대 및 유통환경 개선 추세
 - － K-pop, K-Beauty, K-Food, K-방역 등 한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규 시장 개척 가능
- * 한국 제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품질', '안정성', '합리적 가격' '세련미' 등의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어 시장 진입에 유리
작은 시장 규모로 경쟁 치열하여 신규 진입 시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 기업부담 줄고 수출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 진출 가능한 기회의 시장

- 한-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시 진출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및 투자 환경 개선
 - －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9년 11월 25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양국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
- 한-캄 FTA 발효 시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투자 진출 기회 제공 전망
 - － 한국 제품의 캄보디아 시장 진입장벽 완화, 농산물 가공, 소비재 제조 등 다양한 투자 진출 기회 발생
- 캄-중 FTA 및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등 발효 예정
 - － 캄보디아의 무역협정 및 특혜관세를 이용해 중국, 한국 등 다양한 수출시장 개척 및 유망 부문 투자 진출 가능

□ 지역 및 세계 경제로의 통합 노력과 제조업 대체 기지로서의 가능성

- 열악한 인프라 개선,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다양한 경제통합 노력 중
 - － 도로, 공항, 교량, 철도, 전력망 등 개선,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유무형의 투자 환경 개선 노력
 - －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시장 접근성 개선 및 상품 경쟁력 확대 모색 중
 -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 탈중국 제조업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 충분

나. 수출

□ 캄보디아 대외 교역 동향

- 저렴한 노동력과 무역 특혜를 기반으로 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봉제 부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제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자전거, 전기기기 및 부분품, 농산물 등의 수출은 양호
 - 주요 수출 시장은 EU,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캄보디아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품목명	수출액(2018년)	수출액(2019년)	증가율	비중(2019년)
1	의류(편물제)	6,586	6,001	-8.9	40.5
2	의류(편물제 이외)	1,241	2,285	84.1	15.4
3	신발	1,040	1,267	21.9	8.6
4	가죽제품, 여행용구	571	1,104	93.2	7.4
5	전기기기 및 부분품	511	577	12.9	3.9
6	차량 및 부분품	404	442	9.4	3.0
7	귀금속류	86	438	409.4	3.0
8	곡류	419	421	0.5	2.8
9	가구류	135	420	211.2	2.8
10	모피류	299	289	-3.4	2.0
합계		12,707	14,824	16.7	100

자료: ITC Trade Map(direct data)

- 봉제 및 건설 투자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 증가, 내수 확대 등으로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봉제 외 제조기반이 열악하여 수입 의존도가 큼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제 원부자재 및 건설자재 수요 감소, 내수 침체
 - 주요 수입시장*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 비중의 3%를 차지하는 수입 규모 6위 국가

* 대(對) 중국 수입품목: 봉제 원부자재, 건설자재, 휴대폰, 기계류, 전기기기

대(對) 태국 수입품목: 연료, 자동차, 음료, 오토바이, 농기계, 금, 시멘트, 동물사료

대(對) 베트남 수입품목: 연료, 봉제 원부자재, 알루미늄 용기, 비료, 사료, 오토바이부품, 철강

대(對) 일본 수입품목: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및 부품, 전기기기, 봉제 원부자재, 자전거

〈캄보디아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품목명	수출액(2018년)	수출액(2019년)	증가율	비중(2019년)
1	편물	2,734	2,682	-1.9	13.2
2	차량 및 부품류	1,712	2,377	38.9	11.7
3	광물성 연료	1,832	2,368	29.3	11.7
4	기계류 및 부품류	1,036	1,413	36.4	7.0
5	전자기기 및 부품류	780	1,071	37.2	5.3

6	합성섬유	999	1,009	1.0	5.0
7	플라스틱제품	566	755	33.4	3.7
8	면(cotton)	584	645	10.5	3.2
9	철, 강철류	296	478	61.3	2.4
10	종이류	385	477	23.8	2.4
합 계		17,393	20,279	16.6	100

자료: ITC Trade Map(direct data)

□ 한국-캄보디아 간 교역 동향

- 대(對) 캄보디아 수출입은 지속 성장(2016년 수출 제외)하여 2019년 양국 교역량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

〈한국-캄보디아 간 교역 동향〉

(단위: USD 백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8월	예상
수출	654	652	572	603	660	696	353	529
수입	194	216	239	261	314	335	219	328
수지	460	436	333	342	345	360	134	201
교역량	848	868	811	864	974	1,031	572	857

주: 2020년 예상치는 1~8월 실제 교역액을 기반으로 연간 교역량 예측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품목은 차량, 음료, 의류 원부자재, 알루미늄, 의약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신발, 케이블, 가방, 천연고무 등

〈대(對)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2020년(1~8월)	
		수출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1	음료	70	17.2	83	18.3	49	-13.0
2	화물자동차	82	18.5	120	46.6	40	-49.9
3	편직물	107	-9.4	73	-31.4	39	-24.0
4	알루미늄조가공품	35	-54	35	0	30	27.7
5	기타섬유제품	52	24.8	49	-6.5	25	-22.0
6	기타가죽	24	522.9	37	53.9	13	-44.8
7	승용차	17	94	33	94.1	13	-50.4
8	의약품	12	7.3	16	28.6	12	23.8
9	화장품	16	51.2	16	-0.7	11	13.1
10	기타의직물	22	40	21	-3.7	8	-43.3
총계		660	9.4	696	5.5	353	-24.1

주: 2020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대(對)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2019년		2020년(1~8월)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1	편직제의류	126	10.3	139	9.6	83	-13.2
2	직물제의류	46	70.6	47	2.4	34	1.0
3	신발	33	39.2	38	14.2	34	42.2
4	제어용케이블	31	15.9	29	-6.0	30	53.1
5	가방	22	80.7	24	5.7	14	-22.1
6	천연고무	2	-43.6	4	74.5	3	10.7
7	취미오락기구	3	53.4	4	24.8	3	-15.0
8	주류	12	-26.0	14	12.8	3	-67.4
9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4	-6.2	11	-21.5	2	-84.0
10	의류 액세서리	1	65.4	2	83.1	1	12.8
총 계		314	20.3	335	6.8	219	-5.1

주: 2020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비관세장벽

- 과거 수입 규제가 적고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경제발전, 정부의 규제강화 노력 등으로 비관세 장벽 점차 증가
 - 여러 기관에서 품목별 인허가 등 규제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498건으로 2015년 대비 약 33.0% 증가
 -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 식량 안전 및 농림업과 관련된 농림수산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산업수공업부를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수 증가
 - 최근 수입허가 및 제품등록 미비 제품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으므로 관련 절차 사전 확인 및 준수 필요
- 이 외에도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자의적인 품목 해석, 과다한 서류 요구, 이유 미상의 통관 지연이나 FTA 미적용 등 다양한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
 -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무역관이 문제 해결 위해 적극 지원 가능

다. 투자 진출

□ 캄보디아 최신 투자 진출 동향

- 봉제공장 투자 유인 감소
 -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산업은 2020년 EU의 EBA 특혜관세 철폐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류 수출이 막히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음

- 봉제 협회와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6월까지 450개 공장이 운영 중단하였으며, 83개 공장이 공식적으로 폐업

○ 부동산 투자는 큰 영향 없이 호황 지속

- 2020년 상반기 국토건설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 및 부동산 투자는 총 2,522건의 건설공사를 승인하였으며, 38.42억 달러 금액 규모.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총 투자액 33.92억 달러, 승인 2,047건에 비교해도 크게 증가한 수치
- 승인된 모든 프로젝트 중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2,097건으로 금액 규모는 약 18억 달러이며, 이 중 36건이 대형주택단지(보레이) 프로젝트임. 2020년 승인 대형주택단지(보레이) 프로젝트는 금액 규모로 총 6억 5천만 달러이며, 전체 가구 수는 6,562가구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국별 대(對)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코로나19 이후에도 중국발 투자 지속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 승인 국가별 건수는 중국발 투자가 2020년 8월까지 전체 138건 중 72건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 등록금액 및 신고 금액은 건수에 비해서는 비중이 다소 낮음
- 현지인 및 기업 또는 타국 기업과 합작투자로 이루어지는 중국발 투자도 다수 존재하나 통계자료상에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중국 투자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통계(2020년 1월 1일~8월 31일)〉

(단위: 천 달러)

국가	투자 승인 건수	등록금액 (Registered Capital)	신고금액 (Fixed Assets)
중국	72	180,058	831,494
캄보디아	27	148,060	773,410
홍콩	12	35,350	92,357
대만	10	33,210	68,537
말레이시아	2	1,490	51,775
태국	2	2,000	44,891
베트남	2	2,000	8,230
영국	2	1,490	104,045
한국	2	70,000	262,806
미국	2	2,510	33,483
일본	1	100	7,170
싱가포르	1	3,290	45,183
뉴질랜드	1	342	827
이탈리아	1	700	2,023
아르헨티나	1	2,000	2,523
총계	138	482,600	2,328,753

자료: 캄보디아 투자청

□ 분야별 대(對)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동향

- 봉제산업 승인 건 다수, 병원 건설 대형 투자 등록으로 서비스투자 비중 증가
 -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투자 동향은 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봉제 및 신발 제조 투자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음
 - 등록 및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캄-중 합작으로 대형병원 설립 신고로 의료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커짐

〈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통계(2020년 1월 1일~8월 31일)〉

(단위: 천 달러)

업종	투자 승인 건수	등록금액 (Registered Capital)	신고금액 (Fixed Assets)
봉제, 신발, 가방 제조	66	90,100	274,568
관광, 의료서비스	13	85,000	909,652
에너지	7	103,500	355,057
식가공	8	37,000	187,139
유통(쇼핑몰)	1	30,000	113,936
통신	1	1,000	102,000
음료생산	2	18,000	95,820
농산업	6	23,000	94,199
건축자재	9	39,800	55,048
기계, 전기	7	10,000	51,140
기타 제조(차량 부품 등)	6	25,200	48,797
포장	11	20,000	41,397
총계	137	482,600	2,328,753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캄보디아 투자 분야 다양화
 -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심도 증가로 태양광 패널 생산기지 및 신규 에너지 사업 투자 건수 발생
 - 유통, 통신업 및 포장 및 식가공 투자 건수도 증가하여 투자 기업 다각화 이루어지고 있음

□ 캄보디아 투자 진출 진입장벽

- 행정 및 제도적 지원 미흡
 - 캄보디아는 세계 법치지수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법적 지원이 부족한 국가임. 특히 부정부패 부분에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정책 지원보다 부정부패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높은 국가임
 -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제로 해외투자기업이 당면하는 제도적, 인적 문제가 큰 시장으로 직접투자 결정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산업구조 개편

- 캄보디아는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봉제 투자기업의 이탈 및 산업구조 변화
- 이는 정치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생산성 및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상태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성공사례

○ 프놈펜 상업은행 현지화를 통한 진출 성공

- J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2019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 100억 원을 넘어 최대 순이익 달성
- 2016년 JB금융그룹은 프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하며 캄보디아 금융업 진출하였으며, 이후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과 고객 맞춤 상담 서비스를 통해 성장
- 프놈펜상업은행의 전체 19곳의 영업점은 약 300여 명의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 상담 시스템을 적용, 전담 직원을 통해 현지 자산가를 별도로 관리
- 차별화된 디지털 기술력을 앞세워 캄보디아 현지 모바일 채널을 개발하고 기업금융 인터넷 बैं킹을 선보이는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

라. 프로젝트

□ 캄보디아 공공투자 프로젝트

○ 캄보디아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2020~2022년 발표

- 2019년 말 발표된 향후 3개년 공공부문 투자 계획에 따르면 전체 600개 프로젝트에 144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
-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
 - 캄보디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 수행 중으로 ADB와 전력망 공급 확대를 위한 1억 2,780만 달러 차관 계약을 수행하였으며, 시엠립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달러 지출 예정
 - 2020년 진행 중인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도 사업 수행 이후 꾸준히 진척되어 왔음. 캄보디아 최대 개발업체인 OCIC가 진행하는 프놈펜 신공항 건설은 30% 완료, 중국교량공사에서 수행중인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는 20% 완료, 프놈펜 외곽 순환도로는 40% 완료, ChaomCho 교차로는 40% 완료
 - 프놈펜 지역 신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는 지하철도 개발 프로젝트, Chroy Changvar 지역 신규 교량 건설 프로젝트 및 2023 동남아시아게임을 위한 신(新)스타디움 및 연결 도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

〈캄보디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총 사업비 (백만 달러)	프로젝트		비고
1,500	프놈펜 신공항	공항	캄보디아 항공청과 민간 개발사 OCIC의 합작으로 신규 공항 건설 운영 법인 설립, 전체 24만 3,000sqm 규모로 전 세계 9번째 거대 공항 계획. 2022년 말 완공 예정
1,900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	도로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로 수도인 프놈펜과 최대 항만 도시인 시하누크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자금 지원받아 중국교량공사 건설 진행. 20% 공정 완료
273	프놈펜 3차 외곽순환도로	도로	중국 차관을 통해 사업 수행 프놈펜과 간달 주를 통과하는 52.9km 순환도로로, 2020년 약 40% 공정 완료. 2021년 완공 예정
1,344	시하누크 화력발전소	발전소	700MW 신규 석탄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로 캄보디아 최대 기업인 Royal그룹에서 투자. 2개 플랜트 건설 예정으로 350MW씩 2023년, 2024년 완공 예정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한국-캄보디아 간 교역 현황

- 대(對) 캄보디아 수출입은 2019년까지 지속 성장추세로 2019년 양국 교역량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2020년의 한-캄 수출입 교역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 예상
- 2020년 대(對) 캄보디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월 평균 약 5% 감소하였으나, 대(對) 캄보디아 수출액은 월 평균 약 18% 감소, 대(對) 캄보디아 수출액은 수입액에 비하여 경제위축에 따른 변동성이 큼

〈한국-캄보디아 간 교역 동향〉

(단위: USD 백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8월	예상
수출	654	652	572	603	660	696	353	529
수입	194	216	239	261	314	335	219	328
수지	460	436	333	342	345	360	134	201
교역량	848	868	811	864	974	1,031	572	857

주: 2020년 예상치는 1~8월 실제 교역액을 기반으로 연간 교역량 예측
자료: 한국무역협회

- 상위 10개 수출 품목은 변동 없으나, 상위 10개 수입 품목은 일부 변동
- 상위 10개 대(對) 캄보디아 수출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0년 수출량 큰 폭으로 감소, 고가제품군인 승용차·화물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구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예측, 의약품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증가
- 상위 10개 수입품목 중 의약품이 제외되었고, 의류 액세서리가 추가. 코로나19 이후, 캄보디아 정부의 의료용품 관리감독 강화에 따른 것으로 예상

〈대(對)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명	2018년		2019년		2020년(1~8월)	
		수출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1	음료	70	17.2	83	18.3	49	-13.0
2	화물자동차	82	18.5	120	46.6	40	-49.9
3	편직물	107	-9.4	73	-31.4	39	-24.0
4	알루미늄조각공품	35	-54	35	0	30	27.7
5	기타섬유제품	52	24.8	49	-6.5	25	-22.0
6	기타가죽	24	522.9	37	53.9	13	-44.8
7	승용차	17	94	33	94.1	13	-50.4
8	의약품	12	7.3	16	28.6	12	23.8
9	화장품	16	51.2	16	-0.7	11	13.1
10	기타의직물	22	40	21	-3.7	8	-43.3
	총계	660	9.4	696	5.5	353	-24.1

주: 2020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대(對)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명	2018년		2019년		2020년(1~8월)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수출량	증가율
1	편직제의류	126	10.3	139	9.6	83	-13.2
2	직물제의류	46	70.6	47	2.4	34	1.0
3	신발	33	39.2	38	14.2	34	42.2
4	제어용케이블	31	15.9	29	-6.0	30	53.1
5	가방	22	80.7	24	5.7	14	-22.1
6	천연고무	2	-43.6	4	74.5	3	10.7
7	취미오락기구	3	53.4	4	24.8	3	-15.0
8	주류	12	-26.0	14	12.8	3	-67.4
9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4	-6.2	11	-21.5	2	-84.0
10	의류 액세서리	1	65.4	2	83.1	1	12.8
총계		314	20.3	335	6.8	219	-5.1

주: 2020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한국 기업 수출 성공사례

○ 연관 산업 바이어 발굴을 통한 신규 수출 창조

- 기존 윤활유 수출업체 A사는 윤활유 바이어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쟁 심화에 따라 수출액 위축
- 윤활유 취급 바이어 외에 자동차·부품 바이어 및 소비재취급 바이어 지속 접촉
- 신규 접촉 바이어와 거래 성사 등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여 수출 규모 증가
-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 바이어 외에 수입가능성이 있는 바이어 접촉이 필요하며,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바이어 수입 의사가 변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입가능성이 있는 바이어와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

나. 투자

□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투자 진출 동향

- 2019년 기준,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30위 투자 대상국(투자금액 기준), 주요 투자분야로는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 지속 성장하는 분야임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USD 백만, 개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월)
투자금액	65	43	215	137	290	212	58
농업·임업·어업	5	7	11	10	7	7	2
제조업	31	11	31	28	31	44	3
건설업	2	2	11	8	23	33	37
도매·소매업	6	3	4	1	5	8	3
부동산업	2	6	9	4	5	8	11
금융업	13	10	145	80	213	108	1
기타	6	4	4	6	6	4	1
신규 법인	42	33	29	27	31	27	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성공사례

○ KB국민은행 현지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통한 진출 성공

- KB국민은행은 2020년 4월 캄보디아 MDI(소액대출금융기관) 1위이자 캄보디아 내 180여 개의 영업망을 갖춘 프라삭(PRASAC)* 지분인수를 완료

* 2018년 기준, 프라삭(PRASAC)은 시장점유율 41.4%, 자기자본이익률 29.4%, 당기순이익 약 7,800만 달러

- 2020년 KB국민은행 TNI*가 2019년 상반기 대비 9%p 증가한 12.33%로 큰 폭으로 상승. 캄보디아 법인 내 현지직원 수도 2019년 약 150명에 이르며, 영업이익 등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상승

* TNI: 은행 총자산 중 해외영업자산비율로, 글로벌화 수준을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

- 국민은행 대표 모바일 금융플랫폼인 리브(Liv)는 2020년 6월 기준 약 1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캄보디아 디지털 금융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안착. 리브 디지털 금융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성공적인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이 필요함. 캄보디아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130%에 이를 정도로 디지털 사용자가 많아 디지털 기술 도입 적용이 용이함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국과 캄보디아 FTA 현황

○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한-캄 양국 간 교역량 지속 증가

- 한-ASEAN FTA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 일반품목의 대(對) 캄보디아 수출 시 관세의 95%, 2020년 1월 1일까지는 주요 민감품목을 제외, 대부분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3억 7,600만 달러에서 2019년 10억 3,100만 달러로 양국 간 교역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대 교역실적을 거양

* 한-캄 교역규모(백만 달러): (2010년) 376 → (2011년) 538 → (2012년) 719 → (2013년) 751 → (2014년) 848
→ (2015년) 868 → (2016년) 811 → (2017년) 864 → (2018년) 974 → (2019년) 1,031

○ 한-캄 FTA 체결 이후, 캄보디아와 교역 증대 예상

- 한-캄 FTA 제3차 공식 협상이 완료(2020년 10월 8일)되었으며,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 한-캄 FTA에서 경제협력,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법제도적 사항 등 협정서 본문과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 지속
- 불투명한 행정 처리 등으로 인해 다양한 FTA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FTA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캄보디아 수출 기업이 겪는 FTA관련 애로사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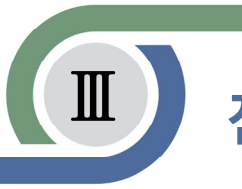
- ① 전자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문제
 - 전자서류로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음
- ②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 관세율 미적용 문제
 - 캄보디아 관세청에서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의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음
- ③ HS code 분류 문제
 - 과일 소주 품목에 대해 HS code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유로 FTA 미적용 관세를 부과
→ 관세청, 한국 세관, 관세분류평가원 등과 각 건에 대하여 직접 협력하여 해결된 사례

□ 한-메콩강 국가 다각적 협력 강화

○ 한-메콩 회의: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20년 9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2019년 11월)

○ 주요 안건

- 코로나19 상황 하에 한국과 메콩 6개국의 필수 인력·상품·서비스 이동과 국제무역 촉진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
- 7대 우선협력분야*의 구체 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한-메콩 협력기금 재원으로 신규 사업** 추진
 - * 7대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위협
 - ** 신규 사업 중 캄보디아 관련 사업은 관개체계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한-메콩 전지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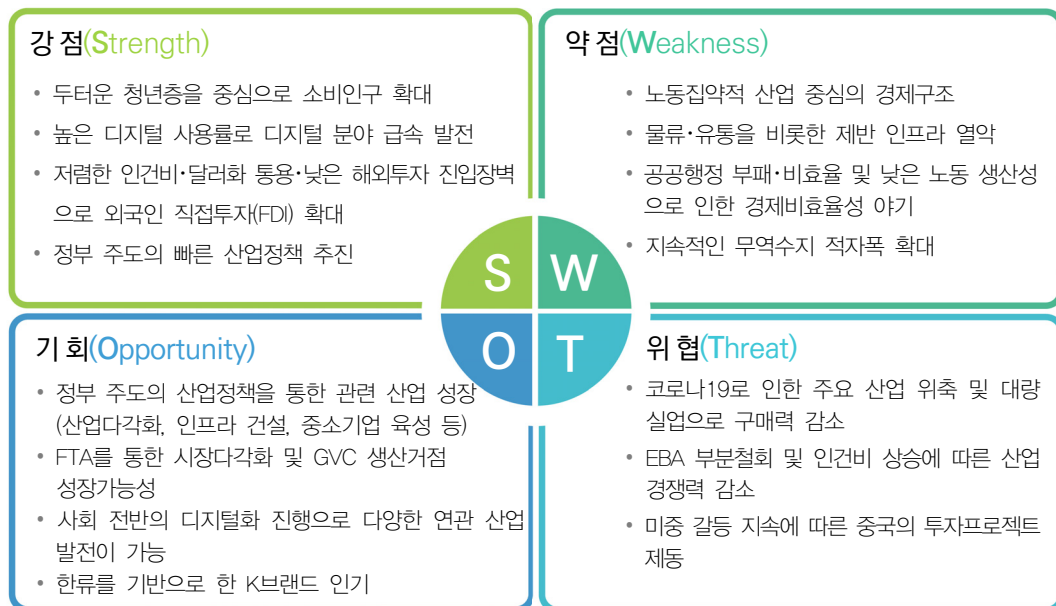


진출전략

요약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 디지털 마케팅·판매 전략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캄보디아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참여기회 확대
- 캄보디아 주요 육성 산업 부문의 현지 투자 진출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디지털·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층 소비를 중점 공략 • 정부지원 산업 중심으로 현지 투자 진출 및 동남아 생산거점으로 활용	청년층·중산층의 소비를 집중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중산층을 겨냥한 유망 소비재 발굴 •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정부의 육성산업부문으로 투자 진출 및 중국 수주사업 적극 유치	디지털을 활용한 판매 및 마케팅 전략
WO 전략 (기회 포착)	• 캄 정부·개발원조자금의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모니터링·참여 기회 확대 • 디지털마케팅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다각적 산업부문 투자 진출
WT 전략 (위험 대응)	• 정부의 직업교육과 연계한 노동자 취업 프로그램 개발하여 인적자본 확보 • 한국 및 한국제품 브랜드 이미지 구축	다양한 인프라 개발·건설 프로젝트 참여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인프라개발·건설) 국가 인프라·투자건설 수요 확대,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지속 발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캄보디아 공공투자계획 2020~2022 발표 등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지속
- 코로나19로 주춤한 건설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관련 건설자재 수요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안전시공에 대한 관심 증대, 건축법 통과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로 한국 제품 진출가능성 증대*
- * 내구성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포지셔닝 진출전략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캄보디아 공공투자 계획 2020~2022년 계획 및 인프라 건설프로젝트
 - 2019년 말 발표된 캄보디아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2020~2022는 향후 3개년 동안 전체 600개 프로젝트에 144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
 - 캄보디아 정부는 ADB와 전력망 공급 확대를 위한 1억 2,780만 달러 차관 계약을 수행하였으며, 시엠립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달러 지출 예정
 - 2020년 진행 중인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도 사업 수행 이후 꾸준히 진척되어 왔음. 캄보디아 최대 개발업체인 OCIC가 진행하는 프놈펜 신공항 건설은 30% 완료, 중국교량공사에서 수행 중인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는 20% 완료, 프놈펜 외곽 순환도로는 37% 완료, ChaomCho 교차로는 40% 완료
 - 프놈펜 지역 신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는 지하철도 개발 프로젝트, Chroy Changvar 지역 신규 교량 건설 프로젝트 및 2023 동남아시아게임을 위한 신(新)스타디움 및 연결 도로 공사가 예정
- 코로나19로 주춤한 건설경기 회복세
 -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투자의존도가 큰 건설 및 부동산 부문 성장 둔화가 되었으나 최근 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중*으로 2021년에는 건설 재개 등에 힘입어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일본 이온몰 3(Aeon Mall 3)이 2020년 10월 착공하였으며, 훈센 총리는 코로나19로 캄보디아 경제가 영향을 받았지만, 초대형 건설현장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언급
- 안전시공 관심과 정부의 감독강화에 따른 한국 건설자재의 수요 확대될 전망
 - 부실공사에 따른 피해발생으로 안전시공·고품질의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 11월 통과된 건설법 이행을 위해 2020년 9월 건설검사관 임명
 - 가격대 성능비가 높다고 인식되는 한국 제품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유럽권의 설계를 따르는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제품이 CE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유럽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 유리하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인프라 프로젝트 모니터링·발굴·참여, 국가개발원조자금을 통한 프로젝트 공략
 - 캄보디아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 및 ADB 등 국제 개발 원조자금을 활용한 국가 개발원조 프로그램 지속 발굴
 - 주변국과의 연결성 확충을 위한 도로, 철도 및 항만 개발 수요 지속, 국가개발 원조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확보 공략 필요
- ‘내구성’과 ‘가격’을 동시에 강조한 시장 포지셔닝 전략
 - 캄보디아 건설시장의 최대 투자국은 중국이며, 캄보디아 건설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 중국의 실제투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많은 건설현장에서 중국 건설기업이 프로젝트 시행을 주도하여 중국 건설자재 주로 사용. 최근 부실 공사 사고 등으로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 증대
 - 중국산, 베트남산, 태국산으로 대표되는 저가제품과 일본산, 유럽산, 미국산으로 대표되는 고가제품 간의 큰 갭에서 한국 제품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현지 기업들의 효율성이 높은 옵션이 될 수 있음

2-2. (소비재) 신흥 소비층인 청년층 집중 공략, 쇼핑몰 입점을 통한 소비재와 서비스 시장 선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구의 47.5%를 차지하는 25세 이하 인구가 신흥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며 다양한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크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므로, 캄보디아 내 중대형 쇼핑몰에 입점하여 시장 선점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젊은 캄보디아 시장, 생활 소비재와 서비스 시장 확대 중
 - 2020년 캄보디아 인구수는 약 17백만 명으로 추정, 그 중 25세 이하가 47.5% 가량을 차지하며 신흥 소비층으로 부상

〈2020년 캄보디아 인구 분포〉

(단위: 명, %)

연령대	0~14세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 이상
인구수	5,108,046	2,925,553	7,026,643	1,089,267	777,475
비율(%)	30.18	17.28	41.51	6.44	4.59

주: 2020년 자료, 추정치
자료: World Fact Book, CIA

- 이들은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며,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 초기에 접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가 캄보디아의 젊은 소비층을 선점하기 위해 시장 진출 중
- 디지털·모바일 이용에 친숙하여, 온라인으로 제품정보 획득 및 구입하며 트렌드에 민감하여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온라인 마케팅 효과적

□ 진출전략

○ 신규 개점 예정인 중·대형의 쇼핑몰 입점

- 기존 캄보디아에 개점되었던 대형 쇼핑몰의 입점 브랜드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다양한 유통·소매점이 개점하여 다양한 신규 브랜드 소개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도 신규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최초의 쇼핑몰로 꼽히는 소리야몰(Sorya Mall)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중저가의 도매상품을 품목별로 판매하는 소매상 위주로 구성되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상품 위주로 판매하였으며, 가장 큰 규모의 쇼핑몰인 이온몰(Aeon Mall)은 일본의 대표적인 해외 진출 쇼핑몰 브랜드로, 주로 일본산 브랜드나 제품 위주로 판매
- 우리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은 새로이 개점하는 쇼핑몰을 통해 ‘캄보디아에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관심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유통망 공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유망 품목 : F&B, 패션·액세서리, 뷰티 서비스, 스포츠 브랜드 등

2-3. (디지털·모바일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이용증가, 온라인 마케팅·판매 및 관련분야 선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모바일 시장 확대 추세 및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으로 활용가능성 증대
-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판매시장 선점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증가 및 모바일 시장 확대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온라인 배달 플랫폼, 온라인 교육 플랫폼, 페이스북 등의 SNS 이용률이 급증.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 초기보다 이용객 수가 1.5~2배가량 증가
- 온라인 수업을 도입한 회계교육학원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대면수업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으로 밝히며, 코로나19 종식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 서비스 및 모바일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다양한 서비스 진출

- 대표적인 모바일 송금 서비스인 Wing사의 경우, 2009년 현지 설립 이후 캄보디아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9년 전국에 7,500개의 대리점, 4만 개 이상의 상점과의 제휴 등으로 총 1.3억 건의 거래가 발생하며, 거래액이 캄보디아의 GDP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
- 그 외 단순 모바일 송금에서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소매결제 등의 부가 서비스가 추가되어 현재 개인 위주의 송금에서 기업까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적극 사용하는 일상적인 서비스로 확대 중

□ 진출전략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마케팅 전략

- 캄보디아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총 978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18~34세 이용자가 78.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소비재·서비스 홍보에 효과적
-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시장 선점 필요
- 캄보디아 E-Commerce 시장규모는 2014년 225만 달러에서 2019년 1,071만 달러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유통망 입점 등의 판매전략 구축도 필요

○ 캄보디아 내 핀테크(Fin-Tech) 발전으로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

- 캄보디아 신용시장이 확대되고, 송금·이체·인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필요한 보안, ATM기기, 은행 결제 시스템 OA 등 ICT 분야의 부가적인 서비스 수요를 공략하는 전략 필요
- 페이스북 전자상거래처럼 주로 Cash on Delivery 형태로 진행된 전자상거래가 핀테크(Fin-Tech) 기반의 거래로 변환되며 시장확대가 예상되므로 온라인 유통망 및 SNS상에서 브랜드 이미지 사전 구축 필요

2-4. (시장·산업 다각화) 포스트 차이나 제조기지로서의 가능성 검토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중 갈등 지속, 캄보디아의 적극적 FTA 체결, 캄보디아 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포스트 차이나 제조기지로서 가능성 검토
- 캄 정부의 육성분야 중심으로 정부의 인센티브 활용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시장 다각화 및 포스트 차이나 제조기지로 부상

- 캄-중 FTA 체결(2020년 10월 12일), 한-캄 FTA 제3차 공식협상 완료(2020년 10월 8일), 캄 정부의 아세안-홍콩 FTA 초안 승인(2020년 10월 7일), 이외에도 몽골·영국·유라시아 경제연합 등과의 FTA 체결 검토

- 양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홍콩 FTA 등 다양한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및 협의 중
- 미중 갈등 지속으로 위험분산을 위한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을 주로 저임금국가인 동남아로 이동하는 움직임 속 캄보디아로 투자 진출 확정 및 검토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은 포스트 차이나 제조기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요인
- 대만기업 TST Group Holding Ltd.는 아디다스, 푸마, 갭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로, 그룹 내 수직통합 생산체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에 2천만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2020년 3월). TST 그룹의 자회사인 Top Spots Textile Ltd.이 캄보디아에서 운영 중인 직물·염색 공장에 대한 확대 투자로, 세부 투자계획은 2020년까지 수립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실제 의류 생산 시작 예정. 이는 기존 원부자재 전량 수입 및 단순 임가공 위주의 의류 제조에서 제조 스펙트럼 다양화 및 GVC 편입을 위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생산능력 증대와 산업구조 다각화에 중심을 둔 캄보디아 산업 정책**
 - ‘2015~2025 산업발전정책’은 노동집약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개편과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6대 중점분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임. 두 정책을 통해 캄보디아 내 산업 다각화를 이루고자 함
 - * 6대 중점분야 : 1) 농업 및 농산물, 2) 식품 제조 및 가공, 3) 국내 소비자 제조, 폐기물 재활용, 관광기념품 생산, 4) 기타 제조업을 위한 완제품, 부품 및 조립품 제조, 5) IT 또는 IT 기반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연구개발, 6) SME 클러스터 지구 개발 또는 입주 기업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포스트 차이나 제조기지로서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가능성 검토**
 -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로 교역·투자확대, 아세안 국가 간 협력강화 등의 기회요인과 함께 저임금·낮은 투자 진출 진입장벽·달러화 통용은 해외기업의 현지 진출 및 제조기지의 강점으로 여겨져 차 후 포스트 차이나 제조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
 - EBA 특혜 부분철폐 및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현지 투자 진출 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
- **6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인센티브 활용**
 -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해당 산업의 외적인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해당분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및 효율적인 진출을 도우므로 캄 정부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농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캄보디아 정부의 농촌현대화 전략에 맞는 세부 과제 선정
-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하여 개발협력·캄보디아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투자 진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캄보디아 정부의 농촌 현대화 정책
 - 캄보디아 정부의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2015~2025 산업발전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 중소기업 육성정책 모두 농촌 현대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포함
- 양국 간 농업 현대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농촌개발, 생산역량강화, 유통 및 수출기반 구축이 있음
 - (농촌개발) 농지 보전 및 개발 등 관리체계 구축(ICT 활용), 효율적인 관개시설 및 수자원 이용역량 강화, 협동조합 등 농촌공동체, 농장체험 등 생태관광 자원개발, 지역산림 개발 및 수확 등 목재기반 산업 육성

- (생산역량 강화) 쌀·콩·채소 등 고품질 종자 보급체계 구축, 옥수수·과일·커피 등 상업영농 확대, 비료·농기계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영농교육시스템 마련, 가축사육 기반 확대
- (유통 및 수출기반 구축) 수확 후 관리·가공·유통기술 및 인프라 보급, 장거리 물류 인프라 구축, 위생검역 등 수출관련 제도정비, 농식품 수출을 위한 가공·종자 개발

□ 진출전략

- (진출전략)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 및 개발협력 연계를 통한 투자 진출
 - (단기) KOICA·농림부·산업부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업·농촌 개발협력 사업 간 연계 강화로 사업 성과 제고 및 농업농촌 개발협력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 저변 확대
 - (장기) 한-캄 농촌개발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농업 협력 전략 및 방안 수립, 한국 농산물 수요 연계한 캄보디아 공급사슬 구축 등 B2G 협력 확대

(진출 사례) 국내 농산물 수요와 연계한 CLM 지역 농업 투자

- (1단계: 농장 투자) 현대종합상사(현대아그로)는 캄보디아 캄봉스프 지역에 망고 농장 300ha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서원유통(MH바이오)도 캄봉스프 지역 8000ha에 망고, 유칼립투스, 카사바 등 농장 직접 운영, 바나나 등 기타 작물 시험 재배
- (2단계: 농산물 가공 및 유통설비 투자) 현대종합상사(현대아그로)는 캄보디아 최초 증열처리 장비 갖춘 농산물 검역유통센터를 2019년 완공. 향후 기타 가공공장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신선 망고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서원유통(MH바이오)은 농장에서 재배한 카사바를 원료로 바이오에탄올 제조, 에탄올 제조공장에 투자하여 한국, 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3-2. (인프라) 교통, ICT 등 인프라 협력을 통한 제조업 기반 마련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캄보디아 정부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
- 캄보디아 지역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발굴, MOU를 활용한 현지수요 선점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경제개발을 위한 높은 인프라·건설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개발정책·프로젝트 추진
 - 2019년 말 발표된 캄보디아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2020~2022를 포함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전력망 확대, 도로개보수 및 확장 등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 인프라 자금은 국제기구 지원금 혹은 차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캄보디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총 사업비 (백만 달러)	프로젝트	분야	비고
1,500	프놈펜 신공항	공항	캄보디아 항공청과 민간 개발사 OCIC의 합작으로 신규 공항 건설 운영 법인 설립. 전체 24만 3,000sqm 규모로 전 세계 9번째 거대 공항 계획. 2022년 말 완공 예정
1,900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	도로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로 수도인 프놈펜과 최대 항만 도시인 시하누크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자금 지원받아 중국교량공사 건설 진행. 20% 공정 완료
273	프놈펜 3차 외곽순환도로	도로	중국 차관을 통해 사업 수행 프놈펜과 간달 주를 통과하는 52.9km 순환도로로, 2020년 약 40% 공정 완료. 2021년 완공 예정
1,344	시하누크 화력발전소	발전소	700MW 신규 석탄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로 캄보디아 최대 기업인 Royal그룹에서 투자. 2개 플랜트 건설 예정으로 350MW씩 2023년, 2024년 완공 예정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프로젝트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발굴

- 캄보디아 인프라 신규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신규 수주 내용 지속 모니터링
- 중장기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가능성 있는 신규 프로젝트 사전 발굴 노력

○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현지 시장정보 및 관련분야 현지 수요 모니터링

-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KOTRA-캄보디아 건설협회 MOU를 기반으로 건설 관련 현지 수요 지속 모니터링
- 발굴된 현지 수요에 맞는 사절단·상담회 사업을 통해 현지유망 수요 선점 공략
- 유럽권 설계를 따르는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CE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유럽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으로 시장공략 가능

3-3. (통상협력) FTA·한-메콩 협력활용을 통한 통상협력 강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캄 교역 지속 확대 및 한-캄 FTA 체결 시 교역확대 예상, 한-메콩 협력강화로 우리기업의 캄보디아 진출가능성 증대
- KOTRA 사업 참가로 한-캄 유망분야 중심 시장정보·바이어 정보 획득 및 시장선점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캄 FTA 체결 이후, 캄보디아와 교역 확대 예상

- 한-캄 FTA 체결이후 한-캄 간의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10억 달러 돌파. 한-캄 FTA 체결 시, 코로나19로 위축된 교역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캄 FTA 제3차 공식 협상이 완료되었으며(2020년 10월 8일),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 한-캄 FTA에서 경제협력,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법제도적 사항 등 협정서 본문과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 지속
- 불투명한 행정 처리 등으로 인해 다양한 FTA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FTA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협력강화를 포함한 공동의장성명 채택
 - 코로나19 상황 하에 한국과 메콩 6개국의 필수 인력·상품·서비스 이동과 국제 무역 촉진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
 - 7대 우선협력분야*의 구체 협력사업 지속 발굴 및 한-메콩 협력기금 재원으로 신규 사업** 추진
 - * 7대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위협
 - ** 신규사업 중 캄보디아 관련 사업은 관개체계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한-메콩 전지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을 포함

□ 진출전략

- KOTRA 사업 참가를 통한 한-아세안 FTA 유망 품목 시장 선점
 - 한-캄 FTA 체결 시, 유망품목으로 예상되는 식음료, 차량(부품 포함), 생활소비재, 건설자재 등에 대한 시장 선점이 필요
 - KOTRA 사업 참가를 통해 현지 시장정보 획득 및 현지 바이어 발굴과 지속적인 관계 구축 필요
- 메콩강·아세안 역내 밸류체인 구축 노력
 -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각국 거점과 거래선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나 지식, 경험, 노하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역내 서플라이체인 파트너십(Regional Supply Chain- Partnership)의 구축이 필요. 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 기 진출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연계 활용 필요
 - (메콩강) 메콩강위원회를 통한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역내 중장기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활용한 역내국가 종합 진출을 통한 밸류체인 구축 노력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유아용 분유 	HS Code	1901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 백만)	85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백만)	0.6
	선정사유	인구성장, 경제 성장 및 중산층 부상으로 유아관련 시장 확대되며, 프리 미엄 시장 형성과 함께 확대 전망		
	시장동향	일반 소비재의 경우 태국, 베트남, 중국 등의 제품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조제분유는 주로 선진국에서 수입돼 영유아 식품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경쟁동향	2018년 기준 분유 총 수입의 50%를 말레이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프랑스, 한국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인스턴트 라면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15
	수입액 (2019년/US\$ 백만)	11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백만)	0.5
	선정사유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이 급감하면서, 상대적 가격경쟁력/한국식품의 안전한 이미지/유통시장 현대화와 함께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 증대		
	시장동향	높은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대, 소비 성장에 유리한 젊은 인구 구조 등에 힘입어 식음료 부문 지출 꾸준히 증가		
	경쟁동향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를 비롯하여 한국, 미국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과자 	HS Code	190590	수입관세율(%)	7
	수입액 (2019년/US\$ 백만)	20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백만)	0.2
	선정사유	주요 유통망을 통한 과자 수입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유통 시장도 크게 증가하여 해외 수입 과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		
	시장동향	과자 판매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판매 규모가 2014년 대비 5년간 총 52.8% 성장하는 등 성장세를 보임		
	경쟁동향	- 50% 이상을 태국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 - 한국 제품은 주로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입		
	진출방안	-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필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 및 품질 강조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임을 강조		

	건강보조식품	HS Code	2106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 백만)	62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백만)	2.7	
	선정사유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면역력 향상 등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수요 급증			
	시장동향	건강식품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2019년 건강식품 소비 시장규모는 2015년 대비 40% 증가한 약 51백만 달러 규모			
	경쟁동향	한국 홍삼제품류와 미국의 영양제 및 식사대체식품 중심으로 진출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20%
	수입액 (2019년/US\$ 백만)	33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백만)	2	
	선정사유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국/태국의 저렴한 제품보다는 한국/일본 등의 유명한 제품 선호			
	시장동향	-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팩이 공급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음 - 품질이나 성분을 자세히 확인하기보다 제조업체, 포장지 등을 보고 구입하는 경향이 강함			
	경쟁동향	싱가포르, 태국, 한국 제품 등이 인기			
	주방용품	HS Code	732391	수입관세율(%)	0%
	수입액 (2019년/US\$ 백만)	0.6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백만)	0	
	선정사유	중산층 증가 거주 생활양식의 변화로 주방용품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수요 증가하며, 중국산 저가 제품에서 고급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장동향	중국산 저렴한 제품부터 고급 수입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경쟁동향	저렴한 중국 제품이 여전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최근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해 한국, 유럽산 등 고급제품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화물차	HS Code	870421	수입관세율(%)	15%
	수입액 (2019년/US\$ 백만)	341	대한(對韓) 수입액 (2019년/US\$ 백만)	44	
	선정사유	경제 발전과 더불어 물류량 증가, 건설 경기 호황 등으로 상용차 수요 증가			
	시장동향	물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상용차량 수요 지속 증가			
	경쟁동향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제품이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로 오랜 시간 인기를 누리고 있음			
	진출방안	바이어의 수요에 맞게 제때 제품 및 관련 부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 제공 필요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온라인 교육	선정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캄보디아의 전국적 휴교 실시 및 온라인 교육 시작
	시장동향	한국 업체 측에서 제공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진출 중
	경쟁동향	한국, 일본,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플랫폼이 경쟁 중
	진출방안	교육 서비스 및 기자재 상품의 차별화 및 캄보디아어로 전문 제작 필요
배달시장	선정사유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서비스 플랫폼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음식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료품, 생필품 및 차량공유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 분야 확대 중
	경쟁동향	음식 배달과 택배 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외 업체들 진출 중. 한국 브랜드도 일부 진출
	진출방안	택배, 쇼핑 등 다양한 분야로의 서비스 확대 및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사용자 편의 개선, 직원 교육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한 차별화 필요
전자상거래	선정사유	- 내수 확대, 구매력 증가로 소비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각종 구매활동도 증가하고 있음 - 그간 많은 전자상거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제도화될 전망
		시장동향
	경쟁동향	일부 쇼핑몰 진출 실패한 사례 있으며 현재 패션, 식료품 등 일부 쇼핑몰들이 경쟁하고는 있으나 아직 시장 초기 단계
		진출방안

□ 무역사절단

- 지자체·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 프놈펜 무역관은 종합품목 및 한-캄 FTA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연중 5회 정도 실시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2021년도 무역사절단 개최 계획(잠정, 추가예정)

순번	사절단명	기간(잠정)
1	프랜차이즈 사절단	미정
2	종자사절단	미정

□ 지사화 사업

- 중소기업의 지사역할 수행하는 유료서비스
 - 모집시기: 해외지사화사업 통합웹사이트(www.jisahwa.com)에 공고
 - 모집규모: 28개사(연간)
 - 캄보디아 지역 유망 품목: 중고차·특장차·의약품·화장품·음료수·생활용품·건설기자재·철강제품 및 생활용품 등
 - * 연 4~5회 지정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 건축자재 현지진출 사업(잠정)

- 캄보디아 건설협회(CCA)와 협력하여 건축자재 분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사업내용: 현지 수출상담회(로드쇼) 등 다양한 지원사업 계획 중

□ 수출 바우처 서비스

(수출바우처 보유 기업 대상 세부 내용 exportvoucher.com 참조)

- 해외진출토탈마케팅 사업(6~9개월 500~1,000만 원)
 - 특정 품목의 캄보디아 시장 조사·잠재바이어 조사·마케팅 및 현지 출장 지원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상세 사양 맞춤형 구성 가능)
- 캄보디아 시장 초기진출 마케팅 서비스(6개월 300~500만 원)
 - 홈쇼핑·SNS·화장품 전문숍 입점 등 맞춤형으로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지원

□ 프로젝트 참가지원

- 캄보디아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 프로젝트 참가지원
 - 단순 프로젝트에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사까지 지원

□ CSR 마케팅 지원

- CSR을 통한 캄보디아 시장 진출 지원
 - 저개발국의 특성을 활용하여 CSR을 통해 잠재시장 수요를 확인하고 파트너 발굴을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CSR 마케팅 지원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1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13)	2021년 중반	2020년 11월 개최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Cambodia Architect & Decor	2021년 8월 5~7일	
Cambodia Health & Beauty Expo	2021년 8월 5~7일	
CamFood & Hotel	2021년 9월 2~4일	
Cambodia Health & Beauty Expo	2021년 8월 5~7일	
Cambodia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Expo	2021년 12월 2~4일	

1. 한-캄보디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 비전

가. 캄보디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 캄보디아의 잠재력

- **빠른 경제 성장***(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 높은 **젊은 인구층**** 비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 지님

*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추이: (2015년) 7.0% → (2016년) 6.9% → (2017년) 7.0% → (2018년) 7.5% → (2019년) 7.1% → (2020년 예상) -1.7%

** 캄보디아 인구층 구성(2018년): (0~14세) 30.18%, (15~24세) 17.28%, (25~54세) 41.51%, (55~64세) 6.44%, (65세 이상) 4.59%

-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제조업 시장 경쟁력 낮음 → **노동집약산업, 중간제조업 거점 활용도 높음****

* 캄보디아 최저임금 수준 변화 추이: (2016년) 140달러 → (2017년) 153달러 → (2018년) 170달러 → (2019년) 182달러 → (2020년) 190달러 → (2021년) 192달러

** 미국 등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는 무역관세 혜택 적용 대상국

- 낮은 외국인 투자 제한과 외국인 거래 규제 → 외국기업 투자 장벽 낮음*

* 시장에서 달러화가 자국 화폐와 통용되며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 약함

- 일당 체제, 정국 안정세 유지 및 개혁 지속 전망*

* 2018년 훈센 총리와 캄보디아 국민당(CPP)이 총선에서 전석을 차지, 일당 체제 구축

-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다양한 개발 원조 프로젝트 수용

- 낮은 도시화율, 인프라 확충 중 →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업 호황 중, 다양한 개발 원조 프로젝트 수용**(향후 3년간 약 144억 달러 투자 예정)

* 공공투자계획 2020~2022의 53.8%를 인프라 개발 사업에 투자계획 중

□ 주요국의 대(對) 캄보디아 경제협력 현황

○ 중국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 및 동남아 내 영향력의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 지속, **주요 투자 분야는 건설·인프라·봉제 공장 등으로 특히 건설 관련 투자 지속적으로 확대** 중
- 캄보디아의 최대 항만 도시인 **시하누크빌항에 경제특구 개발**, 100여 개의 기업 입주 및 2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 2020년 8월까지 중국의 투자 신고금액은 약 831백만 달러로 **대(對) 캄보디아 전체 해외투자 신고 금액 중 35%**에 달하는 비중 차지, **캄보디아 제 1투자 국가 지속**
-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투자와 지원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
- 그러나, 정치·군사·경제 등 다방면에서 **대(對)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며 외부 충격에 취약한 캄보디아가 중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변동에 따라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 **무분별한 투자 수용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 확대**
 - * 중국의 건설투자의 경우 중국기업이 자국 인력, 기업, 설비만 사용하면서 현지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나 기여도가 미비하다는 의견 팽배
 - * 특히,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의 우려로 중국의 투자 및 수입의 위축 시 캄보디아 경제 위기에 직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지속되고 있음

○ 일본

- 2013년 아세안-일본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캄보디아와 일본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승격
 - * 일본 2018년 캄보디아 총선에 약 1만개의 투표함 기부, 국민당 신정권 지지발언 등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입장 유지 (당시 많은 서방권 국가들이 훈센총리의 정치적 탄압을 비판하며 제 6대 총선의 투명성 우려 표명)
-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NGO(무정부기구)를 통해 교육, 보건, 인프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및 경제 지원**
 - * 2002년부터 캄보디아의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1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약 3100만 달러 지원
- 최근 캄보디아 항만산업에 대한 시스템개발 및 기술교류를 통해 지원을 지속할 의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인프라 협력증진**을 통해 캄보디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견제**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일본의 **이온몰(Aeon Mall)* 브랜드는 캄보디아 내 최대 쇼핑몰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일본 브랜드의 캄보디아 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캄보디아 유통, 물류 산업의 일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
 - * 2014년 이온몰 1 개점 이후 2018년 이온몰 2 완공, 2023년 이온몰 3 개점 예정

○ 미국

- 2016년부터 캄보디아산 핸드백, 지갑, 여행가방 등 28가지의 품목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적용***
 - *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돕기 위한 취지로 전 세계 119 개의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수출상품에 특혜관세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 프로그램 시행 중
- 그러나 캄보디아 정권의 부정부패 및 인권탄압 관련하여 문제 제기
- 특히 2018년 캄보디아 제 6대 총선의 투명성 관련 훈센 총리와 여당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세특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캄보디아 압박**. 미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단일 수출 시장일 정도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GSP 혜택이 축소 또는 중단될 경우 경제적 타격 불가피**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중국 인건비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미국의 다양한 여행용 가방 및 신발 공장이 캄보디아로 제조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등 **캄보디아 반사이익 누릴 가능성 있음***

* 중국산 여행용 상품이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목록에 포함되며 중국내 대미(對美) 수출 제조업체들의 제3국 이전 가속화 중, 그러나 캄보디아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현실적인 제약 존재

○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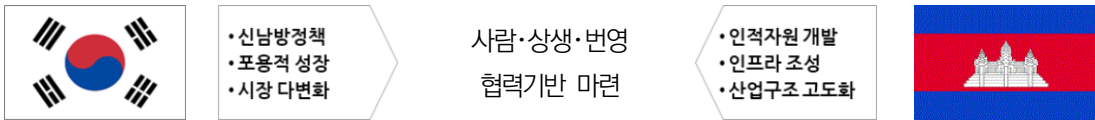
- EU는 캄보디아의 제 1수출국으로, 2018년 캄보디아 전체 수출액의 97% 차지 (54.9억 달러, 주요 수출품은 섬유제품, 쌀, 자전거 등)하고 그 중 95%가 개발도상국으로 **무역특혜제도(EBA)*를 적용 받은 무관세 수출품**

* EBA(Everything But Arms)는 EU가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의 관세와 쿼터 제한을 면제하는 무역특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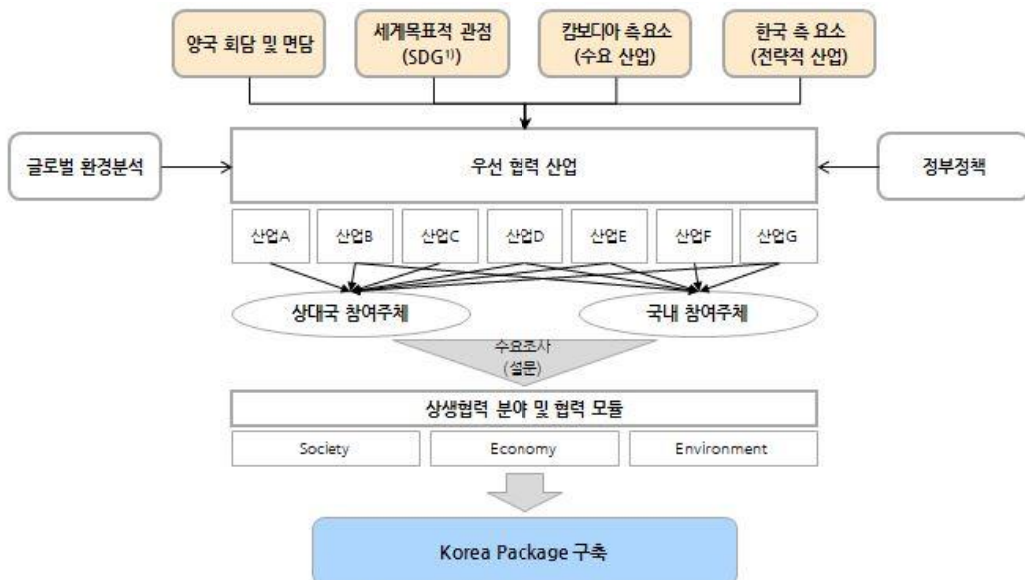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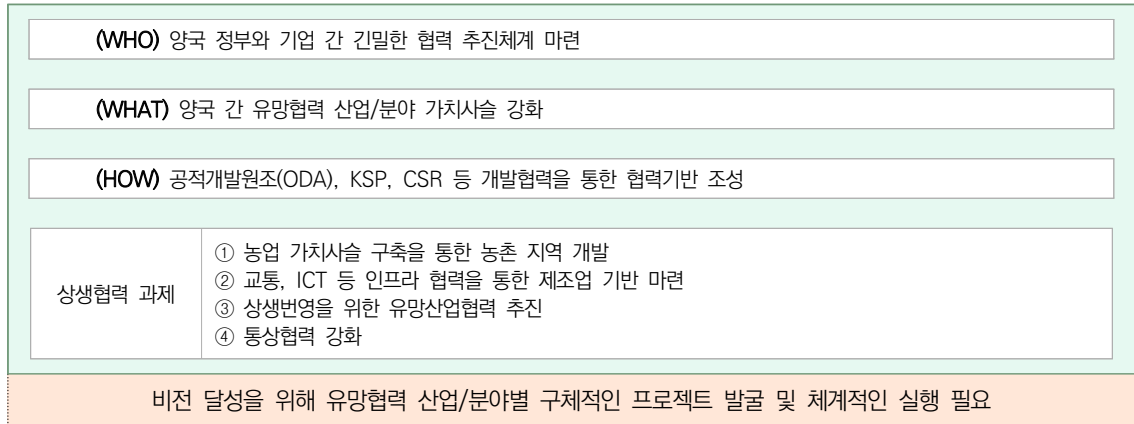
- EU는 캄보디아의 심각한 인권 및 노동권 위반을 이유로 2020년 8월 12일부터 **EBA 무역특혜 부분 철회**를 시행하여, 의류·신발·가방 등 대(對) EU 수출의 약 20%인 10억 유로가 영향을 받게 되어 **캄보디아 수출 타격 불가피**

나. 한-캄보디아 상생협력 미래 비전 도출

한국-캄보디아 상생협력 비전



중장기 상생협력 추진방향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의제

2.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상생협력 유망산업 발굴 및 분야별 협력모델 구축

① 농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촌 지역 개발

□ 양국 간 상생협력 수요

- (캄보디아 측 수요) 캄 정부의 농촌 현대화 정책과 농업의 경제 내 높은 비중
 - － 농업은 GDP 23.5%(2018년 기준)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 인구의 45% 이상 농업에 종사 중으로 전체 인구의 약 75%가 농촌에 거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이 농업으로 흡수되며 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 － 농촌 개발 및 농업의 현대화는 캄보디아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이나, 여전히 낙후된 농업 생산 인프라, 부족한 기술 등 농가의 생산성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 부족
- (한국 측 수요) 농업관련 개발경험·기술 보유 및 개발원조 중심의 농업협력 확대 필요
 - － 관개 및 배수, 농지조성 등 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농촌종합개발 경험이 있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종자개량·농산물 가공 유통 등 농업분야 전반에 높은 기술력 보유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 보유
 - － 현재까지 협력 사항이 개발원조에만 치중되었으며, 기관별 개별적 사업으로 사업진행 분산

구분	담당	사업	내용
ODA	KOICA	농업 및 농촌개발 지원	프로젝트, 봉사단, 연수생 초청, 민관협력 등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기획협력, 공동협력, 컨설팅 등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 등
EDCF	수출입은행	인프라 개발 차관	농촌개발 프로젝트 차관 제공
B2G	농어촌공사 등	해외농업·산업자원 개발협력	해외 농업개발기업에 융자 및 보조

□ 농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 모델

분야	농촌 개발	생산역량강화	유통 및 수출기반 구축
주요 협력 과제	○ 농지 보전 및 개발 등 관리체계 구축(ICT 활용) ○ 효율적인 관개시설 및 수자원 이용역량 강화 ○ 협동조합 등 농촌공동체 ○ 지역특산물, 농장체험 및 생태관광 자원개발 ○ 지역산림 개발, 수확 등 목재기반 산업 육성	○ 쌀, 콩, 채소 등 고품질종자 보급체계 구축 ○ 옥수수, 과일, 커피 등 상업적 영농 확대 ○ 비료, 농기계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영농 교육시스템 마련 ○ 사료생산, 가축사육기반 확대	○ 소규모 산지저장 및 유통시설 ○ 수확 후 관리, 가공, 유통 기술 및 인프라 보급 ○ 장거리 유통·물류 인프라 ○ 위생검역 등 수출 관련 제도정비 ○ 농식품 수출을 위한 가공기술 및 수출시장을 고려한 종자 개발

단계	① KOICA, 농림부, 산업부,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EDCF 컨설턴트 등 협의체 구성 ② 농업·농촌 개발협력 사업 간 연계 강화 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예시) EDCF 농업 인프라 개발 차관과 KOICA, KOPIA 역량개발 사업 연계
----	--

	② 국제기구, 경험 담당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개발협력사업 추진 예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사업 중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을 차관 사업으로 추진 ③ 농업·농촌 개발협력 사업에 국내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협력 저변 확대
장기	① 한-캄 농촌개발 협의제를 통해 중장기 농업분야 협력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② 국내 농산물 수요 연계 현지 공급사슬 구축, 지역 특산품 → 농촌관광 상품화 등 B2G 협력 확대 ⇒ 국내 농산물 수급기반 및 진출 판로 확보 등 상생 ③ 사후관리체계를 통해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류시스템 마련
목표	농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 지역 개발

(진출 사례) 국내 농산물 수요와 연계한 CLM 지역 농업 투자

- (1단계: 농장 투자) 현대종합상사(현대아그로)는 캄보디아 캄봉스프 지역에 **망고 농장 300ha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서원유통(MH바이오)도 캄봉스프 지역 8000ha에 **망고, 유칼립투스, 카사바 등 농장 직접 운영**, 바나나 등 기타 작물 시험 재배
- (2단계: 농산물 가공 및 유통설비 투자) 현대종합상사(현대아그로)는 캄보디아 최초 **증열처리 장비 갖춘 농산물 검역유통센터**를 2019년 완공. 향후 기타 가공공장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신선 망고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서원유통(MH바이오)은 농장에서 재배한 카사바를 원료로 **바이오에탄올 제조, 에탄올 제조공장에 투자하여 한국, 아시아,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② 교통, ICT 등 인프라 협력을 통한 제조업 기반 마련

□ 양국 간 상생협력 수요

- (캄보디아 측 수요)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으며 인프라 개발 정책 추진 중
 - 2019년 말 발표된 캄보디아 공공투자 계획(Public Investment Program) 2020~2022는 향후 3개년 동안 전체 600개 프로젝트에 144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
 - 캄보디아 정부는 ADB와 전력망 공급 확대를 위한 1억 2780만 달러 차관 계약을 수행하였으며, 시엠립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달러 지출 예정
 - 프놈펜 지역 신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는 지하철도 개발 프로젝트, Chroy Changvar 지역 신규 교량 건설 프로젝트 및 2023 동남아시아게임을 위한 신(新)스타디움 및 연결 도로 공사가 예정
- (한국 측 수요) 큰 경제효과 및 단순 도급형에서 프로젝트 모델 발굴·기획 필요
 - 인프라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자체의 규모도 크지만, 프로젝트 진행단계에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익창출 가능
 - 한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경험은 풍부하나, 수주 형태의 도급형 위주였으며 장기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개발·기획하고 프로젝트 모델 발굴이 필요

□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모델 개발

- 민관협의를 통한 프로젝트 체계적 분석 및 관리
 - 양국의 민관 간 유기적인 연합체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 중장기적인 역내 인프라 개발 계획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역 인프라 개발 및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역내 인프라 개발 수요 발굴
- 금융지원을 포함한 인프라 프로젝트 종합 패키지로 운영
 - (수주형태) 재정이 열악한 CLM 상황을 감안하여 **민관협력사업(PPP)** 및 **ODA** 프로젝트(MDB 포함) 중점 추진
 - (수주·금융지원) **한-아세안 협력 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Team Korea 구성**, 타당성 조사 지원 및 사업 구조 설계, 고위급 수주지원 참여
 - 인니 경전철(철도시설공단) 사례: 정부 간 협력에 기반한 사업협의를 통해 하부 토목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차량 + 신호·통신 + 사업관리 등 철도기술 패키지 수출

③ FTA 활용을 통한 통상협력 강화

□ 한-캄 FTA 체결 논의 및 향후 한-캄 교역 증대 예상

-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한-캄 양국 간 교역량 지속 증가
 - 한-ASEAN FTA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부터 한국 일반품목의 대(對) 캄보디아 수출 시 관세의 95%, 2020년 1월 1일까지는 주요 민감품목을 제외, 대부분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3억 7,600만 달러에서 2019년 10억 3,100만 달러로 양국 간 교역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대 교역실적을 거양
- * 한-캄 교역규모(백만 달러): (2010년) 376 → (2011년) 538 → (2012년) 719 → (2013년) 751 → (2014년) 848 → (2015년) 868 → (2016년) 811 → (2017년) 864 → (2018년) 974 → (2019년) 1,031
- 한-캄 FTA 체결 이후, 캄보디아와 교역 증대 예상
 - 한-캄 FTA 제3차 공식 협상이 완료되었으며(2020년 10월 8일),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 한-캄 FTA에서 경제협력,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법제도적 사항 등 협정서 본문과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 지속
 - 불투명한 행정 처리 등으로 인해 다양한 FTA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FTA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통상협력 강화 모델

- 한-아세안 FTA 관세분류 및 통관·행정절차 교류협력 강화
 - (캄보디아 통관시스템 개선) 캄보디아의 통관시스템의 비효율성 개선,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검증 부담 해소를 위해 통관 애로사항 해결
 - (관세청 실무자 교류협력 강화) 관세청 실무자의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관세행정은 한국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유발해오고 있으므로 양국 정부·민간 차원의 인적교류를 통한 관세청 실무자의 FTA 행정 처리 능력 강화

- (FTA 애로사항 및 활용도 제고 세미나) 양국 간 FTA 활용률 증대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정부·민간 차원의 FTA 세미나 개최

○ 캄보디아 대한(對漢) 무역적자 해소 노력을 통한 협력 기반 마련

- 캄보디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무역기반 조성

나. [B2B] 차별화된 시장 진출 노력 필요

① 글로벌 CSR 사업을 통한 상생가치 창출

□ 글로벌 CSR 사업을 통한 상생가치 창출 및 차별화된 시장 진출 노력

사업유형	내용
자사제품·서비스 체험형 CSR	우리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해외 기술·경영 학교 운영	한국의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하고, 발주처 및 구매처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시장 개척에 기여
상생가치 창출형 CSV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우리나라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및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하며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글로벌 CSR 성공사례〉

캄보디아 치기공 기술학교 개최

- (내용) 캄보디아 내 치과의사·치기공사·치과 보철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진 기술 교육 → 국내업체 파트너링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및 시장 개척
- (성과) 기술학교와 연계하여 제품 판매(6만 2,500달러) 및 시장 진출 발판 마련

② 메콩강·아세안 역내 밸류체인 구축 노력

□ 메콩강·아세안 역내 밸류체인 구축

○ 메콩강·아세안 국가 간 역내 협력 강화

- (아세안)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역내 무관세, 비관세장벽 철폐 등 경제통합이 이루어짐.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 지속 강화
- (메콩강) 메콩강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포럼·연구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며 메콩강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2011년)를 시작으로 하여,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한-메콩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지속적인 협력 확대 지속

* 1995년 시작된 메콩강위원회는 메콩협약에 근거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참가한 초정부 간 기구로, 미얀마와 중국은 대화파트너로 참여

○ 메콩강·아세안 역내 밸류체인 구축 노력

- (아세안) 역내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각국 거점과 거래선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나 지식, 경험, 노하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역내 서플라이체인 파트너십(Regional Supply Chain-Partnership)의 구축이 필요. 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 기 진출 우리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연계 활용 필요
- (메콩강) 메콩강위원회를 통한 개발 전략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역내 중장기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활용한 역내국가 종합진출을 통한 밸류체인 구축 노력 필요

3. 향후 대(對) 캄보디아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캄보디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2008년 최초 개최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 중(2018년까지 총 4회 개최) → 지속적인 교류 및 위원회 개최로 인해 양국 간의 경험 이슈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각국의 정책, 규제 반영을 위한 협력 논제 도출
- 필요 기능 및 분야별 분과 형성 →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② Team Korea 구축, 양국 협업을 위해 필요한 시장정보 모집 및 Action & Plan Center 역할

- 대사관, KOTRA, KOICA 등 진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G2G 과제 및 G2B 과제의 효과적인 분석과 정책 협력 정책/제안 수립을 위한 Team Korea 역할 구축
- 민간 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수립하고, 필요 시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당 현지 당국 부처 혹은 한국 유관기관/정부부처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개설(예: Korea Desk)

다. [향후과제] 순방 시 체결된 양국 협의 내용기반 시행체계 수립

- 정상순방 시 정부차원 제작된 K패키지 활용 → 주요 협력 과제 분야의 MOU 체결 완료
 - * 정상방문 연계 체결 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투자증진 협력·학술협력·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에 대한 양해각서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실행예시) 한-메콩 회담,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활용, 체결된 양해각서(MOU)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 수립 및 적용
 - KOTRA와 대사관 중심으로 한-아세안 정상회담 연계 특별 시장 사절단 구성
 - 한국 건설자재 및 설비를 수요로 하는 캄보디아 민·관 차원의 사절단 구성하여 한-아세안 정상회담 시 방한 → 국내 기업과의 상담회 개최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주영	과장	프놈펜무역관	+855 023 999 099	jyeong@kotra.or.kr
2	서정아	과장	프놈펜무역관		sjagogo@kotra.or.kr
3	김용기	과장	프놈펜무역관		kwkvs@kotra.or.kr

KOTRA자료 21-070

2021 국별 진출전략 캄보디아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1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783-0(93320)
979-11-6490-693-2(95320)(PDF)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